

3 Special Edition

헌종~고종대 천주교 박해와 순교 기록

글. 방상근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

1. 머리말

한국의 천주교회는 1784년에 설립되었다. 1783년 말에 북경에 갔던 이승훈이 그곳에서 그라몽(Grammont, 梁棟材)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귀국한 후 1784년 겨울에 서울의 이벽 집에서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한국 교회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천주교의 교세는 급속도로 확대되어 병인박해 직전인 1865년에는 23,000명의 조선인이 천주교 신자로 살고 있었다.

지역적으로도 처음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충청·전라도에 신자들이 존재하다가, 점차 강원도·경상도·제주도까지 퍼져나갔고, 1860년대에는 황해도와 평안도·함경도까지 천주교가 전파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천주교의 교리는 유교의 이념과 배치되는 점이 많았다. 그리하여 조선의 사대부들은 천주교를 사학(邪學)으로 간주하였다. 임금과 부모보다 천주(天主)를 높이는 것을 불효(不孝)와 불충(不忠)으로 보았고,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무시하는 오랑캐로 취급했다. 그 결과 1791년의 신해박해를 비롯하여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오박해, 1866년 병인박해 등 크고 작은 박해가 100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100년의 박해 시기 동안 수천 명의 신자들이 희생되었다.

조선시대 천주교의 역사는 피로 얼룩진 박해의 역사였다. 그러나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행동은 살아남은 신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했고, 새로운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즉 순교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당시는 물론 후대에도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그들의 행적을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 천주교사에서 순교자에 대한 기록은 18세기 말부터 만들어졌고, 이러한 전통은 19세기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프랑스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활동하던 헌종대 이후 시기는, 순교자들의 집단적인 전기(傳記)가 본격적으로 작성되던 때였다.

2. 헌종대의 박해와 순교 기록

1) 기해박해와 병오박해

헌종의 재위(1834~1849) 기간에는 1839년과 1846년에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다. 1839년에 발생한 기해박해는 풍양 조씨 세력이 천주교에 대해 온건한 정책을 펼쳤던 안동 김씨 세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조선에서 활동하던 앵베르(Imbert, 范世亨) 주교, 모방(Maubant, 羅伯多祿) 신부, 샤스탕(Chastan, 鄭牙各伯) 신부 등 3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정하상을 비롯하여 수많은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하였다.

기록상 기해박해 때 체포된 사람은 대략 190명이며 이중 137명이 순교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누락된 신자들을 고려하면, 이때 체포된 사람과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많았을 것이다.

1846년에도 천주교에 대한 박해(병오박해)가 일어났다. 이 박해는 김대건 신부가 페레올(Ferréol, 高) 주교의 명령에 따라 황해도 연안에서 고기잡이하는 중국인 어부를 통해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과 연락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김대건 신부는 서해안에서 중국 어부들에게 선교사의 편지를 전달하고 귀환하다가 체포되었는데, 이 박해로 김대건 신부를 비롯하여 9명이 1846년 9월에 처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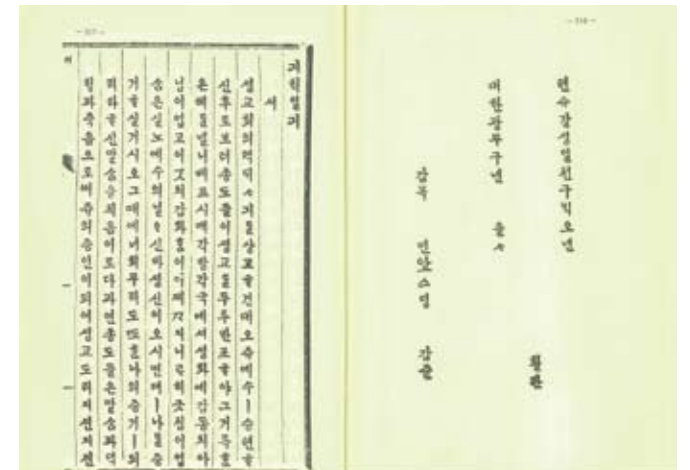
2) 순교 기록

(1) 교회 기록

① 『기해일기』

『기해일기』는 '1839년의 박해 보고서이자 순교자들의 전기'이다. 한글로 작성된 이 책은 필사본으로 전해지다가 1905년에 활판본으로 간행되었다. 『기해일기』의 작성은 1839년에 순교한 앵베르 주교가 신자들에게 순교자들의 행적을 수집하라고 지시한데서부터 출발한다. 앵베르 주교 자신도 체포되기 전인 1839년 8월 7일까지 「1839년 조선 서울에서 일어난 박해에 관한 보고」(Relation de la Persécution de Seoul en Corée en 1839)를 작성하였다.

『기해일기』는 최영수가 1841년 4월(음) 이전에 초고를 작성하였고, 현석문이 내용상 잘못된 곳을 수정하여 1841년(음력 4월 이후)에 완성하였다. 『기해일기』는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으며, 박해 상황에 대한 설명과 78명의 순교자 전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박해 당시의 목격 증언록이며, 또 기해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최초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기해박해 순교자전으로는 유일하게 한글로 작성되어 일반 신자들의 신심을 장려하는데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01_『기해일기』서

기해일기
성교회의력터스귀를상교
신후로보러종도들이성교
은혜물넌니베프시매각방
님이업고이곳치감화함의
숨은실노예수의닐은신
시오그대에

②『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

김대건 신부는 부제 때인 1845년 1월에 입국하여 4월까지 서울에 머물면서『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조선 교회의 창립에 대한 개요’이고, 두 번째는 ‘1839년에 일어난 기해박해의 전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839년에 순교한 순교자들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이 부분은 서양 성직자와 조선인 신자를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기해일기』에 78명의 순교자 행적이 수록된 반면, 이『보고서』에는 33명의 행적만이 수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보고서』는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3명의 의미는 크지 않다. 더구나 33명의 행적이『기해일기』와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보고서』는『기해일기』의 내용을 토대로 순교자들의 순교 사실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여기에 조선 교회의 역사(略史) 등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한 기록이라고 하겠다. 이『보고서』는 1845년 7월 마카오에 있는 리브와(Libois) 신부에게 보내졌다.

③『기해·병오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

『기해일기』,『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에 이어 기해박해 때 순교한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으로 1846년 페레올 주교가 작성한『기해·병오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이 있다. 이 자료는 ‘1839년과 1846년 박해 때 순교한 순교자들의 행적을 현석문과 이재의가 수집하고, 페레올 주교가 프랑스어로 기록한 것을 최양업 신부가 부제 때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다.

『행적』에는『기해일기』에 수록된 78명의 순교자 중 72명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고, 여기에 1841년에 순교한 김성우와 병오박해 때 순교한 9명의 전기가 새롭게 실려 있다.『행적』의 체제와 서술 형식은『기해일기』와 거의 같으며, 내용은『기해일기』에 비해 매우 간략하다. 그리고 이 자료는 순교자들의 시복(諡福)*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기 때문에 서술 내용도 신자들의 순교 과정에 맞추어져 있다.

④『기해·병오박해 순교자 시복 재판록』

이 자료는 기해박해 때 순교한 73명, 병오박해 때 순교한 9명을 시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로, 교황청에 제출하기 위해 1882년부터 1905년까지 진행된 재판 기록이다. 비록 박해 당시의 기록은 아니지만, 82명의 행적을 목격한 신자들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⑤『조선 주요 순교자 선정』과『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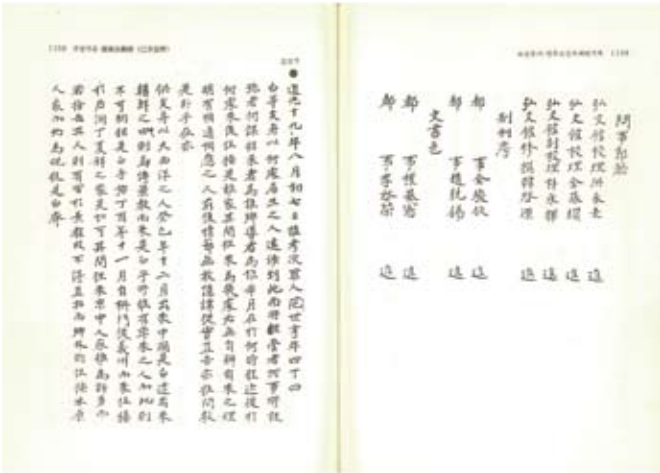
현종대의 순교 기록은 제5대 조선대목구장 다블뤼(Daveluy, 安敦伊) 주교가 저술한『조선 주요 순교자 선정』(Choix dex Principaux Martyrs de Corée)과『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Notes pour l’histoire dex martyrs de Corée)에도 있다.『조선 주요 순교자 선정』은 1858년(철종 9년)에 완성되었으며, 시복 청원을 위해 작성한 1785~1846년에 순교한 210명의 약전이다. 그리고『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는 1860년경에 완성된 조선의 천주교사로, 천주교 서적이 조선에 전래된 시기부터 1841년까지의 내용이 순교사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2) 관변 기록

현종대의 순교자 기록은 관변 자료에도 있다. 물론 관변 기록은 기록의 주체가 신자가 아니며, 순교자들의 행적을 후대에 전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순교자들의 신앙 고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변 기록 역시 중요한 순교 기록이다.

관변 자료 중『추안급국안』에는 국청(鞫廳)에서 신문받은 신자들의 진술 내용이 있는데,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 등 3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유진길, 정하상, 조신철, 남이관, 김제준 등 조선 신자 5명의 기록이 남아 있다.

다음으로『좌포도청등록』과『우포도청등록』에도 포도청에 체포된 신자들의 신문 기록이 있다. 다만『포도청등록』에는 병인박해 때의 기록이 대부분이고, 1866년 이전의 경우는 최영수(1841년 순교)와 이연이, 장임이, 한소임의 기록이『우포도청등록』에 실려 있을 뿐이다. 이외『실록』에는 기해박해와 병오박해 때 순교한 주요 신자들의 처형 기사가 있고,『일성록』과『승정원일기』에는 신자들의 결안(結案)과 판결 및 처리 과정이 수록되어 있다.



02.『추안급국안』 : 앵베르 주교 신문 기록

3. 고종대의 박해와 순교 기록

1) 병인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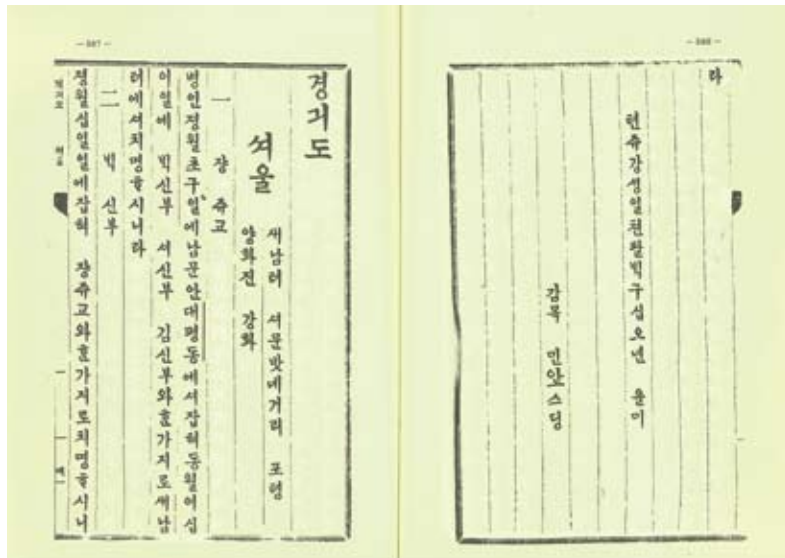
1846년 이후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소강상태를 유지했다. 즉 철종의 재위기간(1849~1863)에는 조정의 공식적인 박해가 없었고,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신자 공동체도 확산되어 갔다. 그러다가 1864년 1월 철종이 사망하고, 12세의 고종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어린 왕을 대신하여 처음에는 대왕대비 조씨(신정왕후)가 정사를 맡다가, 얼마 뒤 고종의 부친인 흥선대원군에게 실권이 넘어갔다. 그런데 1864~1865년에 러시아인들이 두만강 근처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때에 신자인 남종삼과 홍봉주 등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영국·프랑스와 동맹을 맺는 것이며, 이를 위해 조선에 와 있는 서양 주교들을 이용하자.”는 방안을 대원군에게 건의하였다. 이에 대원군은 주교와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지방에 있던 주교들이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나 대원군은 약속과는 달리 주교들과의 면담을 미루었고, 결국 1866년 2월에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와 홍봉주 등이 체포되면서 병인박해가 시작되었다. 당시 대원군이 박해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은 천주교와의 접촉을 비판하는 안동 김씨 대신들의 공격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박해는 1866년 9~11월에 있었던 프랑스 함대의 출병(병인양요)과 1868년 5월의 남연군묘 도굴 실패 사건, 그리고 1871년 6월에 발생한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격화되었고, 그런 가운데 1866년 이후 8,000명에 달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희생되었다.

*시복

한국 천주교회에는 103명의 성인(聖人)이 있다. 이중 70명은 기해박해, 9명은 병오박해, 24명은 병인박해 순교자이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데, 먼저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선정된 이들은 일정한 심사를 거쳐 복자(福者)가 되며, 복자들은 또 다른 심사 과정을 거쳐 다음 단계인 성인이 된다. 복자로 선포하는 일을 시복(諡福)이라 하며, 성인으로 선포하는 일을 시성(諡聖)이라고 한다. 시복시성 작업은 해당 교구에서 진행하는 수속과 교황청에서 진행하는 수속,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03_『치명일기』: 베르뇌 주교 약전

2) 순교 기록

(1) 교회 기록

① 『치명일기』

『치명일기』는 병인박해 때 희생된 신자들에 대한 기록으로 1895년에 간행되었다. 이 책은 1884년부터 본격화되었던 시복 조사 작업의 일환으로 간행되었으며, 866명의 순교자 약전을 순교한 지역 별로 서술하고 있다.

『치명일기』는 보다 많은 순교자들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866명의 순교자 약전을 각 지역에 보낸 다음, 이를 토대로 866명에 대한 새로운 증언과 새로운 순교자들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순교 기록들이 많이 수집될 수 있었다.

『치명일기』는 비록 내용은 간략하지만 최초로 병인박해 순교자들을 정리했다는 점과 이후 순교 자료 수집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병인치명사적』

『병인치명사적』은 병인박해 순교자들의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 자료는 1923년과 1925년에 필사된 것으로, 현재 22권이 남아 있다. 『병인치명사적』의 ‘원본’은 대체로 1900년 이전에 시복 작업과 관련해서 작성된 자료이다.

『병인치명사적』은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1987년 한국교회사연구소 간행)과 『박순집증언록』 등 다른 자료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현재까지 알려진 교회 기록 중에 가장 포괄적인 자료이다. 수록된 순교자 수는 990여 명으로 가장 많으며, 순교자 행적도 다른 자료보다 훨씬 풍부하다.

③ 『박순집증언록』

『박순집증언록』은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순집이 증언한 순교자 270여 명의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박순집증언록』의 3권 중 1권만이 시복과 관련해서 1888년에 청취한 박순집의 증언이며, 2~3권은 박순집의 증언이 아니다. 2~3권은 1895년 이후에 수집된 것으로, 자료가 섞이면서 『박순집증언록』로 잘못 분류된 것이다. 실제 『박순집증언록』 2권의 내용은 『병인치명사적』 23권의 일부이며, 『박순집증언록』 3권은 『병인치명사적』 3권의 내용과 동일하다. 따라서 『박순집증언록』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자료는 1권뿐이며, 이 1권에 『병인치명사적』에도 없는 32명의 순교자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④ 재판 기록

병인박해 순교자들의 시복 작업은 1884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1,000명 이상의 순교자들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고, 그 중 29명이 시복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9명에 대한 교구(敎區) 조사는 1899~1900년에 재판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1918년에 29명 중 26명이 시복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1921~1925년에는 26명에 대한 교황청 조사가 재판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재판 기록은 이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시복 대상자인 29명 또는 26명의 행적에 대한 증언 기록이다.

“관변 자료는 비록 형량을 줄이기 위해, 또는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도 있지만, 체포 당시 신자들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 자료는 목격 증인들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1차 사료에 버금가는 의미를 갖는다.”

(2) 관변 기록

관변 자료 중 병인박해 때 체포된 신자들의 기록은 현종대와 마찬가지로 『추안급국안』과 『포도청등록』에 주로 수록되어 있다. 『추안급국안』에는 베르뇌 주교 등 4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남종삼, 홍봉주 등 조선인 17명의 신문 기록과 결안이 수록되어 있고, 『포도청등록』에는 486명의 신문 기록이 있다. 그리고 『실록』과 『일성록』, 『승정원일기』에는 현종대처럼 신자들의 결안과 판결 및 처리 과정이 수록되어 있다.

4. 맺음말 - 순교 기록의 의미

현종~고종대에 순교한 신자들의 기록은 관변 자료와 교회 자료에 남아 있다. 이 자료들은 모두 박해와 관계된 것으로, 전자는 체포된 신자들의 신문과 처형에 관한 것이며, 후자는 순교자들의 행적을 서술한 것으로, 주로 시복을 위해 수집·작성된 기록이다.

관변 자료는 비록 형량을 줄이기 위해, 또는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도 있지만, 체포 당시 신자들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 자료는 목격 증인들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1차 사료에 버금가는 의미를 갖는다.

교회 기록 중에는 『기해일기』와 같이 박해 당시에 작성된 순교자 전기가 있으며, 여기에 실린 순교자들과 그들의 삶은 신자들이 공경하고 본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따라서 박해때 작성된 순교 기록은 박해 속에서 신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지침과도 같았다.

1880년대 이후에 작성된 기록들은 대부분 순교자들의 시복 수속을 위한 자료이다. 그리하여 이 기록들은 『치명일기』 외에 일반 신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복 작업을 통해 박해시대의 순교 기록들이 수집·정리될 수 있었고, 그러한 자료들이 오늘날에는 박해의 실상과 순교자의 행적을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IN**

필자 소개

19세기 한국 천주교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세종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다. 현재는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19세기 중반 한국 천주교사 연구」 「한국천주교회사」(공저) 등이 있다.